

박완서 문학에서 시민성의 표상 방식 및 그 이중적 효과

— 운동권 및 사회주의자 인물 등장 소설을 중심으로

한 경 희*

요약

본고는 박완서 문학에서 시민성이 '정신과 물질' 혹은 '정신과 육체'라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대립 구도를 통해 표상되고 있음을, 박완서의 소설 중 운동권 및 사회주의자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들을 통해 구명하고자 했으며, 그로 인해 현실 인식에 있어 이중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좌파 지식인 '오빠'가 등장하는 한국전쟁 체험 소설 및 『목마른 계절』과 같이 사회주의자가 등장하는 소설에서 볼 수 있듯, 박완서는 시민성이란 육체적 본능에 구속된 물질주의적 삶을 반성할 수 있는 지성을 통해 초월적 정신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상정한다. 그런데 시민성과 정신성의 이와 같은 결합은, 시민성 추구에 도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시민성 추구를 육체적 존재로서 자신의 취약함을 수용하지 못하는 미숙함의 발로로 이해토록 하기도 한다. 또한 「티티임의 모녀」, 「거저나 마찬가지로」에서 확인해볼 수 있듯,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의 진정성을 회의토록 한다.

한편 시민성을 정신성과 결합하는 것은 그 반대급부로서 소시민성을 오직 감각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 즉 물질성을 띤 것만을 실재로서 인정하는 물질주의와 결합되도록 함으로써 소시민성 또한 이중적으로 이해하게끔 한다. 「사람의 일기」, 「저물녘의 삽화 1」,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에서 확인해볼 수 있듯, 소시민성이란 곧 속물성이기에 수치심과 죄책감을 유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소시민적 삶

* 한국학중앙연구원 신집현전 대학사 과정생

이란 물질이라는 유일 실재에 충실한 삶이라는 점에서 관념적 허상에 근거한 시민적 삶보다 진실한 삶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정신 물질 소시민 시민 지성 운동권 교양 계급 불평등

목차

1. 서론
2. 도덕적 이상의 추구 혹은 현실 적응력의 결여로서 시민성
3. 수치스러운 삶 혹은 진실한 삶으로서 소시민적 삶
4. 극복되지 못한 사육과 시민성의 문화 자본화
5. 결론

1. 서론

다음 글은 박완서가 『역사비평』 1996년 봄호에서 특집으로 기획한 ‘한국의 세대론 - 정치의식과 사회의식’에서 「60대 - 삶과 정신의 운명적 이중성」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60대의 세대적 특성을 기술한 글의 일부분이다. 이 글에서 박완서는 자기 세대의 특징이 사회변혁에 대한 이중적 시각에 있음을 얘기한다.

그런 세상에 살아남은 우리는 결혼을 하고, 자식새끼를 낳아 식구를 불리고, 자식이라도 좋은 세상 보게 하려고 마소처럼 일해서 번 돈을 교육비에 아낌없이 부었다. 사일구가 이승만 일인독재에 종식을 고했지만 우리 세대는 부끄러운 목격자였을 뿐 주역은 아니었다. 삼일운동이 우리에게 빛나는 전설이었을 뿐 주역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역의 자리가 주어졌던 것은 오직 육이오 전쟁밖에 없었다니,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세대인가. 사일구의 감동은 목격자 노릇만으로도 벽찬 것이었지만, 그 후에 목격한 좌절의 쓴맛은 학생운동에 대한 우리의 이중적인 시각의

뿌리가 되었다. 그 후에 등장한 군사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숨통을 운동권에 걸면서도 내 자식만은 거기 휩쓸리지 않기를 바랐다. 어느새 우리 세대는 대학생 자녀를 거느리게 된 것이다. 최루탄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 자식을 붙들고 눈물겨운 설교를 하다가도, 다음날 등교하는 자식의 등뒤에다 대고는 정 데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앞장은 서지 말아라, 맨 뒤에도 서지 말고 가운데쯤에서 얼쩡대라는 비열한 절충안을 내놓곤 했다. 그건 곧 혁명에 대한 우리 세대의 본심이기도 했다.¹⁾

위의 글에서 박완서가 자신을 포함한 60대를 “육이오 세대”라고 일컬으며, 이 세대의 특징이 사회변혁을 바라 마지않으면서도 현실화를 위한 실천에는 주저하는 태도에 있다고 고백하듯 얘기한다. 박완서는 이를 ‘운명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표현은 이 세대의 이중적 태도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겪어야만 했던 여러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얘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세대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조선 민중들이 줄곧 품어 왔던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현실화 가능성을 1945년 해방 직후 시기를 거치면서 직접 체험했으나, 동시에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남한 정권이 이를 어떻게 좌절시켰는지도 똑똑히 목격한 세대였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서 공공성 개혁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대두했으며, 그때마다 남한 정권이 이를 어떻게 줄곧 탄압했는지 목도한 세대이기도 했다. 박완서가 “우리 세대는 부끄러운 목격자였을 뿐 주역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공공성 개혁에 대한 시도가 거듭하여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한 데 따른 이 세대의 방어적 심리에 주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박완서, 「특집3: 한국의 세대론 - 정치의식과 사회의식 60대 - 삶과 정신의 운명적 이중성 -」, 『역사비평』 34, 1996.2, 180면.

박완서가 자신의 소설에서 공공성 개혁에 대한 바람을 억누르고 부조리한 지배 권력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소시민들의 삶과 그 복잡다단한 내면을 재현해온 것은 이와 같은 세대 의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박완서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들이 정치적 자유에 대한 강렬한 희구를 지니고 있음을, 자신의 소설에서 함께 드러내곤 한다. 어쩔 수 없이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삶인 만큼 정치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전체적 권력에 예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주체적 삶에 대한 바람이 얼마나 클 수밖에 없었는지를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다. 박완서의 소설에서 이에 대한 희구는 정치적 자유를 위해 부조리한 지배 권력에 대항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들의 형상으로 나타나곤 한다. 다음과 같은 예문들이 그 구체적인 양상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엄마의 반일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됐다.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상경하자마자 엄마는 오빠와 숙부에게 우리도 창씨개명을 하자고 재촉했다. 그건 나도 은근히 바라는 바였고 또 으레 그럴 수 있으려니 했다. 그러나 이번엔 오빠가 반대를 하고 나섰다.

... (중략) ...

나는 처음으로 오빠를 딴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대한 묘한 긍지를 느꼈다. 나아말로 무엇을 알아서라기보다는 전형적인 속물의 세계에서 별안간 우뚝 솟은 어떤 정신의 높이를 본 것 같은 환각이었다. 그런 건방진 느낌은 그 무렵 왕성해진 독서 체험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²⁾

인민군에 나가 싸운 삼촌은 북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미리 약속이 돼 있었는지 삼촌댁도 시집 식구와 행동을 같이하지 않고 원산의 친정으로

2)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세계사, 2012, 137-139면.

돌아가 있었다. 나는 삼촌을 좋아했는데 삼촌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무도 삼촌에 대해 입에 담지 않았고 기다리는 것 같지도 않았다. 내가 삼촌을 좋아했다는 게 생각만 해도 쓸쓸해지는 상처가 되었다. 삼촌에게선 우리 식구들에게는 없는 분위기가 있었다. 옷자락에서 풍기는 냄새까지 향긋했고 무뚝뚝한 식구들에게는 없는, 연민을 숨기지 못하는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삼촌을 통해 막연히 동경하게 된 교양인의 냄새가 사라진 우리집은 어린 나에게 무지렁이들만 남은 것처럼 보였다.³⁾

위의 인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박완서의 소설에서 정치적 자유에 대한 회구는 식민주의와 계급주의를 반대하기 위해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인민군에 나가 싸”우는 등 정치공동체의 부조리함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인물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물들의 면모는 무엇이 사회적 정의와 역사적 진실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소시민들과의 대비를 통해 더욱 강조된다.⁴⁾ 이 점에서 이들은 소시민들에게는 결여된 덕목인 시민성 즉 정치공동체에 대한 참여를 자신의 권리이자 의무로 여기는 시민성을 보여주기 위해 형상화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 그런데, 박완서는

3) 박완서, 『빨갱이 바이러스』, 『그리움을 위하여』, 문학동네, 2013, 329-330면.

4) 소시민이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중간에 위치하는 중간계급을 일컫는 용어나, 오늘날에는 고도로 자본주의화된 세계 속에서 봉급 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일반 대중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소시민은 정치적으로 우유부단한 존재라고 비난받곤 하는데, 그들이 자신의 경제적 성격 때문에 프롤레타리아적 행동양식을 철저히 취할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해 때때로 반체제적 운동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이에 반발하는 경향마저 보이기 때문이다.

5) 시민이란 공동체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 서로 관계 맺으며, 공동의 문제를 함께 숙의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시민은 단지 한 개인으로서 자기 자신 및 자신이 속한 특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따라서 시민의 이해관계는 보편주의적 언어로 표상된다. (신진욱, 『시민』, 책세상, 2008, 15-16면 참조.) 이에 시민은 순응적인 대중과 달리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된다. 시민성은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 규범과 같은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자질 전반을 가리키나, 일반적으로 공공선을 이루기 위해 시민의 의무를 수행해야

자신의 소설에서 시민성을 독특한 방식으로 표상한다. 위의 인용에서도 시민성이 ‘정신’, ‘독서’, ‘교양인’ 등과 같은 용어들을 통해 표상되는 것처럼, 박완서의 소설에서 시민성은 ‘정신과 물질’ 혹은 ‘정신과 육체’라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대립 구도를 통해 표상되곤 한다.⁶⁾ 그러나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규범을 지키는 것이 곧 물질이나 육체를 초월하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시민성과 정신성은 비슷한 것이 아니다. 이에 본고는 박완서가 어떠한 원리로 시민성을 ‘정신과 물질’ 혹은 ‘정신과 육체’의 이원적 관계 속에서 표상하는지 해명해보는 작업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표상 방식으로 인해 현실 인식의 차원에서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박완서의 소설 중 운동권 및 사회주의자 인물에 등장하는 소설들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밝힌 바 있듯이 박완서의 소설에서 1960년대 이래 반정부 운동을 이끌었던 운동권 대학생들은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통렬한 자기반성의 계기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재로 사용되며,⁷⁾ 이와 같은 운동권 대학생의 연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뒷전에 둘 수 있는 덕성을 의미한다.

- 6) 전통적 형이상학은 정신과 물질(혹은 육체)의 이원론을 전제한다. 이와 같은 이원론에서 영혼 및 신이라는 관념이 형성되고 물질(혹은 육체)은 비도덕적인 악의 기원으로 상정된다. 물질주의란, 물질만이 유일 실재로서 물질세계를 넘어선 초자연적 존재란 없다고 보는 주장을 가리키지만, 일반적으로 부와 명예, 지위 등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일련의 태도를 가리킨다. 이 점에서 물질주의적 태도는 곧 속물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 김성기·유리 옮김, 『키워드』, 민음사, 2010, 299-305면 참조.)
- 7) 박완서의 소설에서 운동권이 재현되는 방식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소시민의 자기반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왔다. 이영아는 박완서가 1970년대까지 군부독재정권에 대항하는 대학생들의 움직임을 회의적인 시선에서 재현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작가의 태도가 한국전쟁기에 남한 정권이 반공주의를 앞세워 좌익을 지지하는 대중들의 움직임을 탄압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박완서의 소설에서 운동권이 다른 방식으로 재현되기 시작함을 아울러 지적하면서, 이는 박완서가 1980년대 이후 학생운동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며 지금까지의 소시민적 비

속선상에는 일제강점기 및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민족해방 및 계급해방을 위해 투쟁했던 사회주의자들이 놓여있는 것이기도 하다.⁸⁾ 이에 본고는 박완서에게 있어 운동권 및 사회주의자라는 소재가 소시민에게 결합된 시민성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고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운동권 및 사회주의자 인물이 등장하는 박완서의 소설들을 주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도덕적 이상의 추구 혹은 현실 적응력의 결여로서 시민성

주지하다시피 박완서는 1970-80년대 군부독재정권의 통치 하에서 소시민이라고 일컬어져왔던 이들이 당시 어떤 딜레마적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의 내면에서 어떠한 복잡다단한 갈등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을 쓴 작가로 정평이 나있다. 당대 한국 사회의 두 지배 이데올로기인 반공주의 및 발전주의에 대해 동의할 수는

겹합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분석한다. (이영아, 「박완서 단편 소설의 ‘학생운동’에 대한 시선」, 『여성문학연구』 2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오자은과 서은혜는 박완서의 소설에서 운동권에 의해 촉발되는 죄책감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한 바 있다. 오자은은 박완서의 소설에서 운동권이 중산층으로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에게 자신이 구조적인 불의를 묵인하고 오직 자기 일신 상의 이해에만 골몰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오자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정체성 형상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7, 210-236면.), 서은혜 역시 박완서의 소설에서 운동권이 중산층 인물들에게 자신이 청년 시절에 지지해 마지않았던 평등이라는 이상을 현재는 외면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도덕적 수치심 및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서은혜,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죄의식과 도덕적 방어의 전개 과정 : 전향자, 운동권 형상화 소설의 연속성 및 변주와 관련하여」, 『한국학논집』 8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2.)

8) 이혜령, 「박완서의 1980년대 - 빨갱이, 운동권, 사회주의(자)의 절합 -」, 『국제어문』 29, 국제어문학회, 2018.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전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어 어중간한 삶을 살아가는 괴로움을 소설 속 인물들 특히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소시민들을 통해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소설 속 인물들의 괴로움은 이들에게 있어 ‘양심’만큼이나 ‘생존’ 또한 유보할 수 없기에 발생하곤 한다.⁹⁾ 이에 박완서의 소설 속 인물들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기도 하고, 군부정권의 독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에 저항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이 두려워 그저 침묵하기도 하며, 중산층으로서 자신의 신분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불평등을 묵인하기도 한다. 박완서의 소설에서 생존을 위해서 양심을 배반하는 이와 같은 여러 행위들 중에서도 그 원형(原型)이라 할 수 있는 행위는, 좌파 지식인이었던 오빠를 저버린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완서에게 있어 오빠라는 존재가 보편타당한 도덕적 가치 즉 상징적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인데,¹⁰⁾ 오빠를 배신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오빠의 죽음 직후 우리 가족이 보인 ‘먹을 것’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난다.

“엄마가 밤중보다 몇 배나 크고 격렬한 소리를 낸 것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우리는 엄마가 미치는 줄 알았다. 오늘 안으로 아들을 내다 물어야 한다고 엄마는 그렇게 팔쩍팔쩍 뛰면서 소리 지르는 거였다. 우리 집에 모여 앉은 많지 않은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림자이기를 거부한 이는 역설적이게도 사자였다. 엄마가 맡은 부란의 냄새는 역질처럼 무섭게 우리한테 번졌다. 우리는 엄마를 덩달아 콩 튀듯 팔 튀듯 뛰기만 할 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스스로 씹어감으로써 우리하고 정을 떼려는 오

9) 차미령의 표현을 빌리면 박완서 소설의 이와 같은 특성을 “생존에 장악된 인간의 마음에 주목하는 동시에, 그것에 항의하고 이탈하는 마음 역시 포섭”하는 것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차미령, 「생존과 수치」, 『한국현대문학연구』 47, 한국현대문학학회, 2015, 450면.)

10) 이수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애도와 죄의식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2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94-95면.

빠가 싫고 무서웠다.”¹¹⁾

“식구들이 돌아온 후 그림자처럼 살면서 아주 안 먹고 살았다고는 못 해도 거의 배가 고프 걸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같은 날은 더군다나 였다. 우리가 팔죽을 혐오스러워하는 걸 보고 숙모는 변명처럼 예로부터 상제가 팔죽 먹는 건 흉이 아니라고 했다. 흉이 될까 봐 안 먹는 줄 아는 지, 밤이 깊어 집으로 가면서도 숙모는 팔죽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내 일이면 쉬어서 버리게 될 텐데……, 라고 했다.

“쉬어서 버리면 안 되지.”

엄마가 헛소리처럼 말하면서 팔죽을 가져오라고 손짓했다. 우리는 둘러앉아, 사랑하는 가족이 숨 끊어진 지 하루도 되기 전에 단지 썩을 것을 염려하여 내다 버린 인간들답게, 팔죽을 단지 썰까 봐 아귀아귀 먹기 시작했다.¹²⁾

위 인용문은 박완서가 자신의 한국전쟁 체험을 기반으로 쓴 장편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의 한 장면이다. 이 소설에서 ‘나’는 “오로지 배고픈 것만이 진실이고 그 밖의 것은 모조리 엉살이요 가짜라고 여겨질 정도로 나는 악에 받쳐 있었다”¹³⁾는 말로 한국전쟁기를 회상하는 인물로, 한국전쟁 중 굶주림의 고통을 겪게 된 것을 계기로 돈을 벌기 위해 취직을 한다거나 생계의 안정을 위해 결혼을 하는 등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과 어긋나는 삶을 살기 시작했음을 얘기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들은 오빠의 죽음을 통과한 이후 비로소 시작된 것이었다. ‘나’의 가족은 한국전쟁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을 가지 못하는데, 의용군으로 끌려갔다가 도망쳐 나온 오빠가 불의의 사고로 충상을 당해 서울을 떠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비롯하여 ‘나’의 가족은 당연히 인민군이

11)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세계사, 2012, 189면.

12) 위의 글, 191면.

13) 위의 글, 54면.

점령하고 있는 서울에 남는 것도 불사하며 오빠를 정성껏 간호했지만 오빠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런데 위의 예문이 보여주고 있듯, 오빠에 대한 사랑이 이처럼 지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족은 오빠의 시신이 풍기는 냄새가 당장 괴로워 “사랑하는 가족이 숨 끊어진 지 하루도 되기 전에” 오빠의 시신을 야산에 매장해버렸으며, 팔죽이 쉬면 먹지 못할 까봐 아까워 오빠에 대한 애도를 잠시 뒤로 물러두고 “아귀아귀” 식사를 했다. ‘나의 가족은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괴로움조차 참지 않았다. ‘나에게 오빠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플 수 있다는 사실은, 인간에게는 문자 그대로 생(生)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물적인 본성이 있음을 실감토록 한다.

배고픔과 그로 인한 맹렬한 식욕을 경험하면서 얻어지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와 같은 깨달음은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목마른 계절』, 『도시의 흉년』,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등 한국전쟁기를 배경으로 하는 박완서의 소설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바로, ‘생존’이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되어왔다.¹⁴⁾ 살아 있기 때문에 배고픔과 같은 육체적 욕구를 비롯한 상해로 인한 고통, 질병,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 따라서 본능적으로 식(食)과 성(性)과 같이 생(生)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행위에 쾌락을 느끼고 질병이나 상해와 같이 생(生)에 손상이 가해지는 것에 불쾌를 느낀다는 것, 이로 인해 인간은 자신의 육체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행위를 최대로 추구하고 육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행위를 최소화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삶은 그저 육체에 구속되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의미도 가치도 구할 수 없는 ‘물질

14) 대표적 연구로 신셋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먹는 인간’의 의미: 초기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5, 상허학회, 2015, 340-341면. 이 논문에서 신셋별은 박완서의 초기 장편소설들이 한국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란 곧 삶을 ‘먹기’의 문제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속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먹는 인간’으로서 한국인이 탄생한 역사적 계기로 한국전쟁을 불러오고 있다고 분석한다.

적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박완서에게 있어 오빠가 상징적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빠라는 존재는 바로 이와 같은 물질적 삶을 초월하는 정신적인 것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그러한 삶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그 혼란을 좌익과 우익, 진보와 반동의 대립이라는 이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 들었고, 내가 박수 치고 역성들어 쥐야할 편은 좌익이라는 생각에 망설임이 없었다. (...) 오빠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은 걸로 소문이 나 있었고 용모가 준수하고 말수가 적고 우애가 깊었다. 게다가 장손이었으니까 자연히 집안에서 떠받들여졌다. 이런 오빠는 나에게 큰 백이었을 뿐 아니라 무조건 추종하고 싶은 우상이었다. (...) 숙부들을 위시해 숙물들만 모여 있는 것 같은 우리 집안 내에서 유일하게 정신적인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빠의 높은 생각을 나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과 어떤 것이든 이해하고 흉내 내고 싶은 마음이 감지한 게 오빠의 사상의 빛깔이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빠가 사들인 책이 맨 그런 책이었으므로 그 중 쉬운 것만 빼다 읽어도 감화받기에 충분했다.¹⁵⁾

위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박완서의 소설에서 오빠라는 인물은 “숙물들만 모여 있는 것 같은 우리 집 안 내에서 유일하게 정신적인 높이”를 가지고 있었던 이로서, 숙물들은 할 수 없는 “높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로 나타난다. 대다수의 이들이 자신의 육체적 본성에 이끌려 그저 생의 유지를 위한 물질적 삶을 살아갈 때, 오빠는 글을 통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이였다. 그런데 오빠가 좌파 지식인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박완서의 소설에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을 지닌 이들은 곧 현실개혁의 의지를 지닌 이들

15)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세계사, 2012, 197면.

로 나타나곤 한다. 이들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물질적 삶 자체를 반성할 수 있는 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은 자신의 지성을 통해 발견한 보편타당한 진리를 현실에서도 그대로 실현하려 하기 때문이다.¹⁶⁾ 박완서의 소설 중에서 사회주의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소설인 『목마른 계절』(1978)을 통해 이와 같은 면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나보고 물러나라고 그랬죠? 같이 물러나요. 제발 그러시다, 네?”

진이는 제법 크게 자란 아카시아 그늘에서 우뚝 멈추며, 숨돌릴 새도 없이 헐떡이며 말한다.

“네? 말해봐요 승낙하는 거죠? 우리가 여태껏 말한 것만으로도 물러날 이유는 충분해요. 비겁할 건 조금도 없어요. 지금 물러남으로써 여태껏의 우리의 참여 또한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민준식은 뜻없이 빙긋빙긋 웃기만 하더니 고개를 좌우로 크게 흔든다.

“미안해, 간청을 못 들어줘서. 쉬 떠날 테야. 빨치산이나 의용군으로...”

“뭘라고요? 왜 무엇 때문에...”

“출신성분의 오욕을 씻어보고 싶어.”

“미쳤군요. 정말 그까짓 최치열의 미친 소리를 듣고 그 장단에 춤을 추다니. 곧... 그래요, 곧, 훌륭한 가문을 자랑하며 살 수 있을텐데.”

민준식은 여전히 희미하게 빙긋덜 뿐 뭔가 딴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

16) 이 점에서 박완서 문학에서 시민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성인의 교양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교양은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사유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자질로 상정된다. 『목마른 계절』의 사회주의자 민준식이 양반가의 사촌이자 서울대생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처럼, 박완서의 소설에서 운동권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체로 수준 있는 고등교육을 받은 명문대생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 논의할 바와 같이, 박완서 문학에서 시민성이 엘리트 계급의 문화 자본으로 전유되고 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역시, 시민성을 교육에 의해 함양되는 교양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진이는 거의 울상이 돼서,

“여봐요. 우리 같이 그만둡시다. 제발 같이 빨갱이짓 그만둡시다. 같이 라면 할 수 있어요, 네?”

그녀는 같은 소리를 몇 번이고 웅얼웅얼 되풀이하다가 제풀에 웅얼거림을 그친다. 그가 듣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한참만에야,

“이건 이미 정해진 일이야. 내 몸뚱이가 노동자의 몸뚱이와 어떻게 다른가를 벌거벗고 비교하는 일은 아주 필요한 일이야. 적어도 나에게는. 도저히 거역할 수 없어.”

드디어 진이도 그녀 힘으로 그를 어찌할 수 없음을 안다.

“당신은 정말 미쳤군요?”

“맞았어.”

“그 한마디로 그의 입은 굳게 닫힌다. 지금 그를 어디론지 몰고 가고 있는 건 사상, 이념, 이런 것하곤 또 다른, 그의 내면 깊숙한, 좀 더 본질적인 것과 결부돼 있음 직하다.¹⁷⁾

『목마른 계절』은 하진이라는 주인공이 한국전쟁을 거치며 생애 처음으로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생존의 무서움을 깨닫고 사회주의로부터 전향하여 그간 자신이 저항해왔던 남한 정권에 편입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는 소설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하진이 사회주의자 민준식과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서사와 병행된다. 민준식은 하진과 달리 북한 정권이 진정한 사회주의적 대의를 실현할 수 없는 정권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인간의 평등’이란 자신의 지성을 통해서 발견한 보편타당한 진리이므로 어떤 외압에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자신이 발견한 진리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명되지 않는 이상, 계급 혁명을 저지하며 세워진 남한 정권과 결코 타협할 수 없다. 그런 그에게는 애인 하진에 대한 사랑 역시 자신의 보편

17) 박완서, 『목마른 계절』, 세계사, 2012, 166-168면.

타당한 진리를 실현하기 전까지는 유보해야 할 한낱 물질주의적 쾌락일 뿐이다. (“적어도 남자가 자기가 선택한 자기편을 배반할 땐 여자와의 사랑이라든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라든가, 이를테면 세속적인 행복에의 욕구 말고 좀 더 결정적인 것을 증언(證言)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진은 바로 이와 같은 민준식의 결연한 모습에서 남성이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느끼기에 그를 사랑한다. 하진이 남한에서 생존을 위해 민준식과 헤어져 혼자 서울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북으로 떠난 민준식을 여전히 그리워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진은 민준식을 그리워함으로써 자신의 일부를 남한 정권에 완전히 예속되지 않은 상태로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다.

『목마른 계절』의 사회주의자 민준식 외에도 『도시의 흥년』에서 운동권 대학생, 『꿈과 같이』에서 60년대 학번 명문대생 운동권, 『꽃 피고 잎 지고』에서 운동권인 남편 친구, 『미망』에서 민중봉기를 주도했던 양반가의 마지막 자손 종상, 『꿈꾸는 인큐베이터』에서 운동권 출신 기자 등과 같이, 박완서의 소설에서 운동권 및 사회주의자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범인(凡人)들과 달리 저열한 물질세계 자체를 반성할 수 있는 지성을 지니고 있어 부조리한 지배 체제를 개혁하려는 정치 성향을 지니게 된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향은 그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도시의 흥년』에서 운동권 대학생 구주현은 결국 도시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시골로 내려가고, 『꿈과 같이』에서 60년대 학번 명문대생 운동권과 『꽃피고 잎 지고』에서 운동권 친구는 취직을 하지 못해 자신의 부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산다. 또한 「저물 녘의 삽화 2」에서 운동권 아들은 사회에 적응할 수 없어 정신병원 밖을 나가지 못하며, 「미망」의 양반 종상은 결국 민중봉기의 이상을 버리고 아내의 자본력에 기대어 상업을 시작한다. 또한 「우황청심환」에서 운동권 아들은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고집대로 노동 운동에 자신의 젊음을 받친다. 다시 『목마른 계절』의 민준식에게 돌아가

보자.

진이는 꿍어앉은 채 절망적으로 민준식의 무릎을 안는다. 그녀는 지난 여름 그를 놓쳤듯이 이제 곧 다시 그를 놓치고 말 것을 안다. 그녀의 등을 민준식의 손길이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그녀는 다시 그가 좋다. 뜨겁고 부드럽고 알싸하고 슬픈 것이 가슴에서 주체할 수 없이 넘친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발이 동상에 걸렸다고, 정말이에요?”

“응, 옮겨올 추위는 대단치도 않았는데 지독한 동상에 걸리고 말았어.”

“그래요 아주 많이? 그럼 몹시 아프겠네요?”

진이는 꿍어앉은 채 그의 발에서 형경으로 된 구두 모양의 두툼한 신을 조심조심 벗긴다. 다음은 해진 얽은 양말을 벗기고 두 손으로 발을 감싼다. 수북이 부어오른 발등과 몽크러진 발가락을 가만가만 어루만지다가 화끈화끈 체온 이상의 열로 달고 있는 발등에 불을 비빈다. 그의 발의 아픔이 그녀의 가슴 한복판으로 화살처럼 와 박힌다. 정녕 아프다. 자기의 육신인들 어찌 이보다 더 아플 수 있으랴.

“아파요? 많이?”

“아아니 아주 편하군. 진이 손은 약손인가 봐. 다 나은 것 같아. 사랑해 진이. 아무리 되풀이해도 모자랄 만큼.”

그녀는 잠자코 양말을 신기고, 자기가 신고 있던 두툼한 남자용 털양말을 벗어 그 위에 덧신긴다. 그는 구태여 사양하려 들지 않고 그녀 하는 대로 순순히 몸을 맡긴다.¹⁸⁾

위의 인용문은 하진이 2차 인공치하 서울에서 민준식과 마지막으로 밀회를 가진 후 영영 결별하는 장면이다. 민준식은 앞선 밀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둘이 아무도 모르게 남쪽으로 도망가 살지는 하진의 제안을 또 다시 단번에 거절한다. 그러나 그토록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진 역시 민준식과의 이별을 그리 어렵지 않게 받아들인다. 생존을 “지엄한 삶의 명령”

18) 박완서, 『목마른 계절』, 세계사, 2012, 340-341면.

으로서 받아들인 하진에게 있어 생존을 도외시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도덕적 신념을 추구하려는 태도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치기 어린 미숙함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진에게 있어 민주식이 비타협적인 태도를 고수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자신이 배고픔과 같은 육체적 욕구 및 상해로 인한 고통, 질병, 죽음을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다가온다. 아무리 육체적 욕구에 구속된 삶이 저열하다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한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조건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육체적 존재로서의 취약성을 겸허히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함이라고 할 수 있으나, 민주식은 과장된 자아 이상에 사로 잡혀 자기 자신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인정과 수용은 곧 현실에서 나아가기 위한 조건과도 같다. 위의 인용에서 민주식의 발이 현실의 땅 위를 걸을 수 없는 “동상 걸린 발”로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완서의 소설에서 육체적 존재로서 인간을 표상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체 부위인 ‘발’이 얼어 있다는 것은, 그가 현실에 발붙일 수 없는 이 즉 현실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없는 이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진은 이런 민주식을 연민하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의 “동상 걸린 발”을 쓰디듬어주고 자신의 두툼한 양말을 신겨주는 것으로 그와 결별한다.¹⁹⁾ 남한 정권으로 편입한 이후 하진은 여전히 그와

19) 이 점에서 『목마른 계절』에서 하진과 사회주의자 민주식의 결별은 박완서의 등단작 『나무』에서 이경과 예술가 옥희도의 결별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경은 인간이라면 삶에서 생계유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옥희도를 사랑한다. 그러나 이경은 결국 옥희도와 결별하고 속물적 삶을 살아가는 태수와 결혼한다. 『나무』에서 이경의 이와 같은 ‘전향’은 다음과 같이 “수증기”와 같은 환상, 공상, 가상을 좇는 상태에서 “육신”을 실감하는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다 왔어. 들어갔다 가도 되겠지?”
 “뭐 하리요?”
 “차 한잔쯤 대접해봐.”

재회하여 결혼할 것을 꿈꾸면서도, 민준식이 돌아오지 않는 게 확실시될 때에도 그를 계속 기다릴 것이냐는 올케의 물음에 “안 그럴걸요.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 강하니까”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3. 수치스러운 삶 혹은 진실한 삶으로서 소시민적 삶

박완서의 소설에서 현실개혁적 정치 성향이 초월적 정신의 추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것은, 남한의 독재정권 하에서 공공성 개혁에 대한 바람을 품는 일 자체가 마치 ‘비현실적인’ 것과 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승만 이래 정치개혁에 대한 바람을 품고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려는 시도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으로 탄압되어 좌절되는 것을 줄곧 목격함에 따라 공공성 개혁에 대한 바람을 ‘몽상’, ‘꿈’, ‘이상’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현실 초월적인 수사들을 통해 표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개혁의 의지를 초월적 정신의 추구 차원과 결부짓는 것은, 소시민으로 사는 삶을 물질만을 유일 실재로 간주하는 물질주의를 통해 표상토록 한다. 이와 같은 면모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반성을 곧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집착하는 속물적 삶에 대한 반성을 통해 보여주는 박완서의 소설들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그 뿐이에요? 겨우 그뿐?”

“그럼 식사라도 대접할 거야?”

“나를, 내 육신을 아프게 상처 내보지 않겠어요? 아까 팔을 비틀듯이 그것보다 훨씬 더 아프게. 내 육신이 다시 수중기가 되어 허공에 걸려 있지 못하도록 깊은 상처를 내보지 않겠어요?”

나는 태수를 내 방으로 청해 들었다. 알맞게 따스고, 고즈넉하고 은밀한 내 처소로. ‘똥’ 자 창과 덧문까지 첩첩이 닫고 나는 그에게 안겼다. 나는 그의 것이 되었다. (박완서, 『나무』, 세계사, 2012, 366면.)

이경이 태수에게 “내 육신을 아프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감각하고 있는 경험적 현실 이야말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진짜’라는 실감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문 날의 삽화 1」은 ‘나’라는 한 중산층 여성이 영택이라는 빈곤층 가정의 아이를 자신의 가정으로 데려와 의붓아들로 키우면서 생겨난 갈등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느 날 ‘나’의 남편은 불우하게 죽은 친구의 막내 아들 영택을 친자식처럼 키우자고 얘기하며,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돕는다는 선의의 마음으로 기꺼이 남편의 제안에 동의한다. 그런데 ‘나’는 영택이가 커갈수록 친아들과 다를 바 없이 남편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점점 더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것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 ‘나’는 자신의 불안이, 영택이가 불륜으로 얻은 자식일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불안의 진짜 이유는 영택이가 ‘나’에게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성공적으로 편입했음을 따라서 빈곤층과 중산층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영택이가 빈곤층 출신임과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을 타파하고자 하는 운동권 대학생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경제적 불평등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얻고 있는 중산층이기에, 경제적 격차를 좁혀오는 빈곤층의 경제적 상황에서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려는 운동권의 움직임에서나 똑같이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경제적 평등이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마땅할 공공선임을 알고 있는 이이기도 하다. 이에 ‘나’는 운동권인 영택이로부터 자신이 사적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 공공선을 도외시하는 소시민이라는 사실을 환기받으며 죄책감을 느낀다. 이때 ‘나’의 소시민성에 대한 수치심 및 죄책감은 다음과 같이 성당이라는 종교적 소재를 통해 표현된다.

신부님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이익에 위배되는 사소한 잘못이나 무관심도 놓치지 않고 후뚜루 죄라고 지목하셨고, 나는 그 죄목에 승복할 수가 없었다. 그런 것들은 죄라기보다는 잘못이라고 하는 게 합당할 듯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산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 적어도 신부님쯤 되면 누구 눈에나 보이는 그런 잔다란 실수보다는 우리가 죄인 줄도 모르고 편히 몸담고 있는 크나큰 잘못, 진짜 죄에 대한 환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바라고 있었다. 신앙의 초심자다운 순진한 바람일 수도 있었으나 벌써부터 냉담을 예비하며 구실을 찾는 심보인지도 몰랐다.²⁰⁾

‘나는 성당에 가 자신의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고 싶어 하며 소설의 마지막에서는 절대자를 향해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을 의인이라고 인정하기는커녕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그를 모함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나’에게 있어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곧 절대자로 표상되는 초월적 정신의 세계를 부정하면서 오직 물질적인 것을 탐하며 살아가는 속물적 삶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사람의 일기」에서도 잘 나타난다. 「사람의 일기」에서 ‘나’는 중산층 가정의 어머니이자 작가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지닌 이이다. 그런데 이 두 정체성은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지닌다. 작가로서 ‘나’는 평등이 지향해야 마땅한 공공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운동권에게 동조하지만, 중산층 가정의 평범한 어머니로서 ‘나’는 평등에 대한 요구가 부유한 이들을 향한 빈곤한 이들의 시기질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소비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소시민이기도 하다. ‘나’는 상반되는 두 가지 정체성 중 무엇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어중간한 상태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나’는 딸이 교통사고로 죽을 위험에 처한 것을 계기로 자신의 소시민성이 시민성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은 것임을 깨닫는다. 이에 대한 반성 역시 종교라는 소재를 통해 이루어진다.

나는 무너지듯이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았다. 주님, 우리 헤령이를 살려

20) 박완서, 「저문 날의 삽화(挿話) 1」,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문학동네, 2013, 14면.

만 주십시오. 더는 안 바라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제발 그 아이를 벌써 죽게만 마옵소서. 어떤 모습으로라도 살아만 있게 하여주소서. 그 아이에게 다리가 없어진다면 기꺼이 다리가 되겠습니다. 눈을 못 보게 된다면 평생 눈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잃은 것을 대신하고 봉사하는 걸로 낙을 삼겠사오니 부디 그 아이를 살려만 주십시오. 그 아이를 죽게 하시려거든 저를 먼저 죽게 하소서. 제가 대신 죽게 하소서.²¹⁾

정말로 간절히 티끌만한 의심도 없이 기도했다. 주님, 그 아이를 살려 주시되 정신만은 올바르게 살려주소서. 정신이야말로 아버지가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게 성하지 않고 어찌 인간이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구해주시는 목숨에다 부디 정신을 더하여주소서.²²⁾

별안간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했다. 혹시 잘못될 경우를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았다. 두려웠다. 처음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몰랐는데 차츰 내가 등을 돌린 그분이 두렵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분께로 돌아서면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주여, 제 딸의 얼굴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 보시기에 좋도록만 돌이켜주소서. 주여, 이 에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²³⁾

‘나’는 딸 혜령이 교통사고를 당해 생사 여부마저 불투명하다는 소식을 듣고 오직 딸의 목숨만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나 딸의 생명에 지장이 없음을 알게 된 이후 ‘나’는 “주님”에게 차차 더 많은 것을 바라기 시작한다. 육체는 상한 부분이 있더라도 정신만은 멀쩡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신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예전처럼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로

21) 박완서, 「사람의 일기」, 『저녁의 해후』, 문학동네, 2013, 322면.

22) 위의 글, 323면.

23) 위의 글, 331-332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나’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얻지 못했을 때에는 “주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하며 신앙에 냉담해진다. 이 과정에서 ‘나’는 자신이 절대자를 자신의 끝없는 속물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처럼 간주하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종교란 이를 지양하고 초월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속물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딸에게 일어난 재난을 통해 주님의 은총을 깨달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내 이웃 사랑의 허위를 폭로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데서 잘 나타나듯, 자신의 이와 같은 속물성에 대한 반성은 자기 외의 타인에게는 배려를 베풀 수 없는 시민성의 결여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박완서의 소설에서 소시민성에 대한 반성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초월적 정신을 거스르고 있다는 종교적 차원의 죄의식으로 비약되곤 한다. 이로 인해 시민적 이상을 견지하여 공공선을 추구하는 삶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천상’의 삶으로서 이상화되는 한편, 그 반대급부로서 소시민의 삶은 저열하고 비속한 ‘지상’의 삶으로 극적으로 절하되며,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결코 해소될 수 없는 수치심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곤 한다.²⁴⁾ 그러나 시민성을 초월적 정신으로 상정하는 것은 이와 같은 소시민적 삶을 옹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소설이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어머니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소설이다. 어머니인 ‘나’는 그간 잘 챙겨오던 시댁 제사를 왜 잊어버렸냐는 큰형님의 전화를 받고 운동권 이들을 잃은 자신

24) 최장집에 따르면 이와 같은 양극화된 인식은 당시 시민사회에서 일반적인 것이었다. 당대 진보적인 사회운동은 시민 일반의 보편적 권리 혹은 공공의 이익을 곧 ‘국가’ 혹은 ‘민족’과 같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같은 것으로 상정하고 있었으며, 사적 이익의 표출과 그에 기반을 둔 조직적 활동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개정 2판, 후마니타스, 2010, 222-230면 참조.)

의 비통을 풀어놓는다. ‘나’에게 있어 아들의 죽음은, 육체적 존재로서 인간의 삶이란 결국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유한한 삶 따라서 허무하기 그지없는 삶을 실감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나’는 더 이상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고 대신 이를 초월하는 데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 ‘나’가 정치공동체를 위해 아들을 희생한 ‘장한 어머니’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처음에야 저도 그게 미치게 억울했죠. 그놈의 쇠파이프가 눈이 멀어도 분수가 있지 앞장선 열렬한 투사들 다 제쳐놓고 하필 우리 창환이었을까, 하구요. 그러나 죽음은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인 거 아닌가요? 게다가 철저하게 개개의 것이구. 그게 너무 무서워서 우선 피하고 싶었어요. 우선 개별적인 것에서 피하는 방법은 휩쓸리는 일이었죠. 집단적인 열정 속으로. 형님도 기억하시죠. 우리 창환이의 장엄한 장례식요. 백만학도가 창환이를 열사로 떠받들었죠. 형님, 제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젊은이들이 제몸에다 불을 붙여 시대의 횃불을 삼으려 든 세상이었잖아요? 죽은 목숨을 횃불 삼으려 든 것쯤 아무것도 아니었죠. 형님이나 저나 하도 궁핍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랬던가, 먹을 것 흔하고 흥청망청 물건 아쉬운 것 모르는 세상만 꿈인가 생신가 좋기만 하던데, 젊은이들 눈엔 세상이 얼마나 깜깜했으면 제 몸으로 불을 밝히려 들었을까요?²⁵⁾

‘나’의 아들 창환이는 명문대생으로서 자신의 전도유망한 미래를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며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주장했던 운동권이었다. ‘나’는 이런 아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자 창환이의 장례식을 “백만학도”와 함께 “열사”의 “장엄한 장례식”으로 치러준다. 이로써 ‘나’는 아들 창환이가 “죽음까지 횃불로 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시대가 깜깜했”을 때 민중, 자유, 해방, 평등과 같은 공공선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친

25) 박완서,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문학동네, 2013, 290면.

것으로 창환이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준다. 이는 허무하기 그지없는 육체적 존재의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아들 창환이는 정치적 대의를 위해 자기 삶을 희생함으로써 민주국가 혹은 민족국가와 같은 보편성을 띠는 정치공동체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이로써 고결하고 아름다운 도덕적 정신으로 추상화되어 소멸의 운명을 지닌 한낱 육체적 존재를 초월한 존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들 창환이는 공공선을 구현하는 이상적인 정치공동체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나가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 “수도 없이 창환이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나의 애달픈 노력은 여고 동창과 뺑소니 사고를 당해 반신불수가 된 그녀의 “병신” 아들을 방문한 일을 계기로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만다.

아이고 이 웬수덩어리는 무겁기도 해라. 천근이야, 천근. 근심이 있나 걱정이 있나, 주는 대로 처먹고, 잘 삭이고 잘 싸니 무거운 수밖에. 내가 이 웬수덩어리 때문에 제 명에 못 죽지 못 죽어, 이 웬수야. 니가 내 앞에서 뒤통야지 내가 널 두고 뒤통야라, 나도 눈을 못 감겠지만 니 신세가 뭐가 되니. 사지나 멀쩡해야 빌어먹기라도 하지, 아이고, 하느님,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병자를 요리조리 굴리고 주무르는데 그 말라빠진 노파가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는지, 거짓말 안 보태고 꼭 공깃돌 갖고 놀 듯 하더라니까요. 아이들 말쑥으로 환상적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닳을 잃고 바라보기만 하다가 명애가 먼저 아이 참, 하면서 손을 내밀어 거들려고 했죠. 나도 덩달아 환자를 뒤집는 일을 도우려고 손을 내밀었구요. 그러나 웬걸요. 우리의 손이 몸에 닿자마자 환자가 이상한 괴성을 질렀어요. 여직껏 흐리멍덩 공허하게 열려 있던 환자의 눈이 성난 짐승처럼 난폭해지더군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손끝이 오그라붙는 것 같았어요. 그의 흐리멍덩한 눈은 신뢰와 평안감의 극치였던 거였죠. 그때 비로소 악담밖에 안

남은 것 같은 친구 얼굴에서 씩씩하고도 부드러운 자애를 읽었죠. 아이 구 이 웬수덩어리가 또 효도하네, 하는 친구의 말로 미루어 어머니 외에 아무도 그를 못 만지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닌가요.

저는 별안간 그 친구가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남의 아들이 아무리 잘나고 출세했어도 부러워한 적이 없는 제가 말예요. 인물이나 출세나 건강이나 그런 것 말고 다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실체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질투가 다 있을까요? 형님, 날카로운 삼지창 같은 게 가슴 한가운데를 깊이 훑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아프고 쓰라려 울음이 복받치더군요. 여기서 울면 안 돼. 나는 황급히 은하계 주문을 외려고 했죠. 소용이 없었어요. 은하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울음이 복받치는 대로 저를 내맡겼죠. 제가 그렇게 많은 눈물을 참고 있었을 줄은 저도 미처 몰랐어요. 대성통곡, 방성대곡보다 더 큰 울음이었니까요. 제 막혔던 울음이 터지자 그까짓 은하계쯤 검부락처럼 떠내려가더라고요. 은하계가 무한대건 검부락지건 다 인간의 인식 안에서의 일이지, 제까짓 게 인간 없이는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겠어요.²⁶⁾

여고 동창의 아들은 “하반신 마비에다 치매까지” 걸려 명민한 지성은커녕 자의식조차 없는 존재, “살이 푸석푸석”하게 썩 천근만근 나가는 “덩어리”, 씩지 않게 하루에 몇 번씩 뒤집어주어야 하는 “덩어리”로 육체적 존재로서의 가장 비천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에 여고 동창은 “니가 내 앞에서 뒤통야지 내가 널 두고 뒤통야봐라, 나도 눈을 못 감겠지만 니 신세가 뭐가 되니” 하며 아들에게 어서 죽으라고 악담을 퍼붓는다. 그러나 여고 동창은 어찌 되었든 아들이 살아 있어 행복한 어머니이다. 병신 아들은 자기 어머니 외에 아무도 자기를 만지지 못하게 할 만큼 배타적인 신뢰를 자기 어머니에게 보내며, 여고 동창은 아들의 신뢰에 감동하며 “아

26) 위의 글, 300-301면.

이구 이 웬수덩어리가 또 효도하네” 하며 “씩씩하고도 부드러운 자애”를 보낸다. ‘나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진한 육친애(肉親愛)를 옆에서 지켜 보며 “날카로운 삼지창 같은 게 가슴 한가운데를 깊이 훑어내리는” 아픔을 느낀다. ‘나의 아들은 민족국가 혹은 민주국가와 같은 이상적인 정치 공동체의 일부분으로 승화된 고결하고 아름다운 도덕적 정신이 되었을지라도, 썩어가는 혐오스러운 살덩어리의 모습으로라도 더 이상 살아 있지 않기에, ‘나는 아들과 이토록 지극히도 사적인 애착을 더 이상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나는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실체”로서의 아들을 잃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프다.’²⁷⁾ 여고 동창과 그녀의 아들을 보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슬픔을 가슴 아프게 인정한 ‘나는 그간 참고 있던 눈물들을 흘리고, “그 울음을 통해 기를 쓰고 꾸민 자신으로부터 비로소 놓여난 것 같은 해방감”을 느낀다.

전 그 울음을 통해 기를 쓰고 꾸민 자신으로부터 비로소 놓여난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요 며칠 동안은 울고 싶을 때 우는 낙으로 살고 있죠. 그러느라고 증조모님 제삿날도 깜박했을 거예요. 은하계도 떠내려가는 판에 한 번 뵈지도 못한 시댁 조상 제삿날이 남아났겠어요. 이제부터 울고 싶을 때 울면서 살 거예요. 떠내려갈 거 있으면 다 떠내려가라죠,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꾸미는 짓도 안 할 거구요. 생때같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서 소멸했어요. 그 바람에 전

27) 존 피스크는 저질화된(degradation) 육체가 피지배들에게 있어 정치적으로 지배적인 것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얘기한다. “개성, 영성, 사회의 밑바닥에 흐르는, 또는 그것들에 앞서는 물질성”에 대한 관심으로 그로테스크하고 왜곡된 육체를 드러내는 것은, 의미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물질성의 차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물질성의 차원”이 의미 체계보다도 앞서 있는 것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는 지배 집단이 의미 체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배 집단에 대한 상징적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존 피스크, 곽한주 옮김, 『텔레비전 문화』, 컬처북, 2017, 445-485면 참조.) 이와 같은 견해를 참조할 때,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에서 여고 동창 아들의 육체는 시민성이라는 고결하고 아름다운 이념을 ‘억압’으로 느끼는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반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지에 장한 어머니가 됐구요. 그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수가 있답니까. 어찌 그리 독한 세상이 다 있었을까요, 네, 형님? 그나저나 그 독한 세상을 우리가 다 살아내거나 한 걸까요? 혹시 그놈의 것의 꼬리라도 어디 한 토막 남아 숨어 있으면 어찌나 의심해본 적, 형님은 없죠? 형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형님 지금 울고 계신 거 아냐? 형님, 절더러는 어찌 살라고 세상에, 형님이 우신대요? 형님은 어디까지나 절벽 같아야 해요. 형님은 언제나 저에게 통곡의 벽이었으니까요. 울음을 참고 살 때도 통곡의 벽은 있어야만 했어요. 통곡의 벽이 우는 범이 세상에 어디 있대요.²⁸⁾

그 이후 ‘나’는 “집단적인 열정”에 거리를 두고 “장한 어머니”에 더 이상 동일시하지 않기에 이른다. ‘나’의 아들 창환이는 실체도 없는 한낱 관념을 통해서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정치공동체인 “온 국민의” 아들이 아니기에, ‘나’에게 아들을 “온 국민의 애도 속”에서 보내었다는 것은 이제 아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에게 아들의 죽음은, “생때같은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잘 나타나듯, 그저 ‘나’의 육체로부터 떨어져나온 또 다른 한 육체가 그 물질성을 잃고 소멸해버린 일과 같다. 이에 “민주열사”의 죽음과 같은 공공선으로 아들의 죽음을 보편화·추상화하는 것은 아들 창환이로부터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물질성을 강탈하여 비현실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과 같다.²⁹⁾ 따라서 ‘나’를 “장한 어머니”

28) 박완서, 앞의 글, 301면.

29) 『유대인 문제에 대하여』에서 마르크스는 공적인 삶에서 개개인들이 “저마다 주권을 가진 존재”로 “최상의 존재”로 간주되는 반면, 사적인 삶에서 개개인들이 “교양 없는 인간, 비사회적인 현상 안의 인간, 그의 유연한 실존 속으로 내동댕이쳐진 인간, 있는 그대로의 인간, 우리 사회 전체 조직에 오염되어 자신을 상실하고 양도한 인간, 비인간적 관계와 요소 아래 놓은 인간”으로 파악되는 이유가 부르주아 시민 혁명으로 성립된 근대 국가 자체의 모순에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근대 국가라는 인위적인 정치공동체는 그 국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공민(公民)’이라는 국민주권의 동등한 참여자로 간주하기 위해 신분, 교육, 직업, 재산의 차이를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결정할 수 없는 비정치적 차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신분, 교육, 직업, 재산과 같은 차이들로부터 개개인들을 분리시킴으로써 ‘공민’이라는 정

로 부른다는 것 또한 ‘나의 슬픔을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취급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로이다.³⁰⁾ 시민적 이상을 견지하여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의 삶이 아무리 고결하고 아름다운 ‘천상’의 삶일지라도, 감각을 통해 경험할 수 없는 것 즉 물질성을 띠며 구체적으로 현상하지 않는 것들이란 곧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이념(ideology) 혹은 이상(ideal)일지라도 이는 정신이 산출한 한낱 관념(idea)으로서 결국 공허한 환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에서 “사극에 나오는 대비마마처럼 이렇게 감정이 섞이지” 않고 다만 “절벽” 같기만 했던 형님, 소설에서 아무런 구체적인 물질성을 단 한 번도 노출하지 않았기에 “고상”하고 우아할 수 있었던 가부장적 도덕의 화신인 형님으로부터 울음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이러한 슬픔이야말로 ‘진정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치적 존재를 만드는 것은 현실 사회에서 신분, 교육, 직업, 재산과 같은 차이들에 의거한 불평등의 위력이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삶이 유적(類的) 존재로서의 삶 즉 ‘공민’으로서의 삶과 감각적이고 이기적 존재로서의 개별적 삶 즉 ‘사인’의 삶으로 이원화되는 모순이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마르크스는 이를 “종교적 인간과 공민 간의 차이, 상인과 공민의 차이, 날뿔팔이꾼과 공민의 차이, 토지소유자와 공민의 차이, 살아 있는 생생한 개인과 공민의 차이, 결국 시민사회 성원과 그의 정치적 허세 사이의 모순”으로 표현하며, 부르주아 시민 혁명으로 수립된 정치공동체 안에서 ‘인간은 유적 존재로서 파악되기엔커녕, 유적 생활 자체가 각 개인에게 낯선 외적인 환경으로 현상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다. (카를 마르크스, 김현 옮김,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 책세상, 1996, 32-34면.)

30) 이 지점에 주목하여 김혜선은 박완서가 민주화운동으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입장에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시민적 태도를 정정하고 있다는 기존 연구의 분석을 반박한다.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은 오히려 “열사의 어머니”로서 재현의 정치”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혜선,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재현되는 ‘투사/열사의 어머니’로서의 정치학과 아포리아」, 『영주어문』 56, 영주어문학회, 2024, 155면.)

4. 극복되지 못한 사육과 시민성의 문화 자본화

박완서가 시민성을 물질세계의 지양 및 초월적 정신의 추구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시민적 덕성을 다른 무엇보다도 이기심의 극복에서 찾은 것으로 이어진다. 정신적인 것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에게 있어 행위의 유일한 지침이 되는 것은 자기 보존하고자 하는 이기심 외에는 없다고 상정되는데, 박완서는 시민성을 초월적 정신의 추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김에 따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이란 자기 보존하고자 하는 이기심 역시 극복한 이들이라고 바라보는 것이다. 자기 자신 혹은 기껏해야 자기 육체의 또 다른 연장으로서 자식에게만 국한되는 사적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는 소시민과는 달리 시민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¹⁾ 시민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기에 자신과 무관한 타인의 고통 특히 '민중'이라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고통을 연민하며 이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완서의 소설에서 이와 같은 시민적 덕성은 타인을 재산과 지위와 같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서 경쟁을 벌이는 대상으로만 여기며 타인에 대해 냉정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타인의 고통을 행복의 자원으로 삼는 소시민들에게 도덕적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박완서는 시민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소시민들이 지니고 있지 못한 높은 도덕성을 지니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시민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

31) 소영현은 박완서의 소설에서 이와 같은 소시민의 이기주의가 가족주의로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계급 유지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영현, 「전쟁 경험의 역사화, 한국사회의 속물화: '헝그리 정신'과 시민사회의 불가능성」, 『한국학연구』 3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292-298면.) 또한 이수형은 홉스의 '만인 대 만인을 위한 투쟁'에 의거하여 박완서 소설에서 자기 보존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가족 단위의 욕구가 타인과의 무한 경쟁으로 이어지는 양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수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생존 경쟁과 주권 권력」, 『인문학연구』 63,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294-300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크게 실망하며 시민적 이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한다. 「티 타임의 모녀」와 「거저나 마찬가지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실제 현실의 사회운동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을 때 쓰인 이 소설들에서 박완서는 시민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실망을 이들 역시 결국 육체적 존재에 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자기 보존하고자 하는 이기심 또한 극복할 수 없는 이들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타낸다.

「티 타임의 모녀」는 1990년을 전후한 현실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민중운동가들이 방향을 잃고 분열하기 시작한 상황을 배경으로 쓰인 소설로,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는 ‘나’의 남편이 노동운동을 그만두는 상황으로 나타난다. ‘나’의 남편은 모든 인간이 신분, 계급, 학력 등에 상관없이 불가침의 존엄성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지니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민중운동을 해온 이였다. 이에 남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평등을 양산하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면서 그 피지배자라 할 수 있는 노동자로 살아갔으며 이를 위해 재력이 집안 출신의 명문대생이라는 자신의 기득권까지 포기하는 대가를 순순히 치렀다. 그가 여고 중퇴 여공인 ‘나’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인간의 평등’에 대한 이와 같은 믿음 때문이었다.

“평생 무시당하면서 살긴 싫어, 싫어, 싫어.”

나는 이렇게 चे머리를 흔들며 대들었다.

“그 문제라면 안심해도 돼. 내가 꿈꾸는 세상은 사람들이 서로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세상이니까.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에 따라서 사람 대접이 달라지는 세상은 옳지 못한 세상이야.”³²⁾

‘나’는 결혼 전 자신이 사귀고 있던 공장 직원이 서울대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사회적 지위가 맞지 않는 결혼을 하면 평생 무시당하며

32) 박완서, 「티 타임의 모녀」,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2013, 362면.

살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그와 이별하고자 한다. 그런 ‘나’에게 그는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에 따라서 사람 대접이 달라지는 세상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라면 안심해도 돼.”라고 얘기한다. 그에게 있어 재산, 학력, 직업과 같은 것을 근거로 한 개인을 인격적 존재로서 존중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므로 지성인인 자신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나’가 그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운동권적 속성”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었다. ‘나’를 비롯한 ‘나’의 가족은 서울 변두리 산동네에 사는 빈민들로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 대한 경멸과 무시를 공기처럼 마시며 살아왔던 이들이었다. 연탄장수인 ‘나’의 아버지와 파출부인 ‘나’의 어머니는 자신들이 비천한 천민처럼 취급당하는 삶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수치심의 고통에 무너지고자 자존심까지 버렸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경멸과 무시에 일일이 분노한다면 오히려 삶을 견디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노동일에 따르는 애로나 굴욕에 대해서는 도무지 숨기는 게 없었다. 연탄지게 지고 가다 미끄럼판에 넘어지면서 부서진 연탄 속에 얼굴을 처박고 허우적덜 때, 길을 그 모양으로 만든 아새끼들이 짹짹대며 놀리던 말까지 손주새끼 재롱처럼 흉내내던 아버지였다. 나는 어려서부터 양친의, 이런 노동은 무치(無恥)라는 태도에 익숙해져 있을 터였다.”) ‘나’에게 있어 남편은 자기 가족과 같은 ‘민중’의 고통을 연민하기에 민중운동에 헌신하는 이였다. 그러나 ‘나’의 남편은 1990년대를 전후하여 “동구권과 소련이 무너진 이후 더 이상 민중운동을 지속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은 아직 그렇게 아름다워지지 않았으므로 그이는 희망을 버려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민중운동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기득권으로 편입해버리기까지 한다. 이는 남편이 아들의 낙상 사고 이후 자신의 부자 가족에게로 돌아가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침 그때 아이가 신음소리를 냈다. 그이가 아이의 이마를 짚었다. 불

덩이잖아! 그러면서 아이를 황급히 안아올렸다. 왜 그래요? 그이의 심상치 않은 기색에 나도 따라 일어서면서 의사가 걱정 말랬다고 그를 안심시키려고 했다. 무식하게소리, 그가 그 한마디를 씹어뻐고는 아이를 안고 집을 뛰쳐나가 길고긴 계단을 곤두박질쳐 내렸다. 아이는 내가 낮에 안고 갈 때처럼 다시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가까스로 그이가 붙잡은 택시가 떠나기 전에 탈 수가 있었다. 그는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다. 큰 병원이었고 당직의사가 지훈이를 진찰하는 동안 그이는 어디다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나서 믿을 수 없는 일이 계속됐다. 지훈이가 뇌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의 증상이라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이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이들의 면모는 완전히 나를 까무러치게 했다. 지훈이는 그 으리으리한 병원에서 뇌수술의 최고 권위자한테 수술을 받았고, 간호사가 체크해도 될 용태까지 젊은 의사가 이십사 시간 지켜보아주었고, 특실에 입원을 했다. 모든 것이 특별 대우였다. 그이의 집안 내에서 경영하는 병원이라고 했다. 뇌수술의 권위자는 그이의 백부였다.³³⁾

‘나의 남편은 자기 육체의 또 다른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아들이 위독한 상황에 처하자 운동권으로 사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연락을 취한 적 없었던 가족에게 연락한다. 그리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아들이 “으리으리한 큰 병원에서 뇌수술의 최고 권위자한테”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하며 “특실에 입원”을 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다. 그런데 ‘나의 남편이 가족에 기대어 배타적인 혜택을 받는 행동은, 스스로를 시민으로 정체화하고 있는 이가 해서는 안 될 공정치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성이란 공공성의 추구를 통해 발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족, 혈연, 지연에 기초한 사적 유대 및 연고를 동원한 특수 이익의 추구는 시민성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³⁴⁾ 생존과 양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극단

33) 위의 글, 366-367면.

34) 김동춘, 「시민권과 시민성 - 국가, 민족, 가족을 넘어서 -」, 『서강인문논총』 37,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33-35면. 가족주의는 가족, 혈연, 지연에 기초한 인간적 유대를 공

적 상황에 처하자 ‘나의 남편은 결국 자신의 양심을 저버린 것인데, 남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아예 이제까지 자신이 저항해왔던 기득권으로 투항해버리기까지 한다. ‘나는 이런 남편을 지켜보며 이제까지 남편이 지냈던 ‘인간의 평등’이라는 시민적 이상이 다만 위선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확신하게 된다. ‘나는 다음과 같은 과거 일화를 떠올린다.

그이가 그들 앞에서 늪름하고, 그들 또한 그이를 조금도 무시하거나 동정하는 투가 아닌 것이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한참 보오양게 살이 오른 지훈이를 보고 다들 한마디씩 덕담을 했다. 장군감, 대령감, 재벌감, 금메달감 등등 많이 배운 사람들이 속물스럽기는 더한 것 같았다. 그이는 잠자코 듣기만 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녀석, 볼수록 귀티가 나네그러, 라고 감탄을 했다. 순간 그이의 표정이 반짝 빛나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내 가슴속에서 또 무겁고도 차가운 게 철렁 내려앉았다. 그건 어쩌면 그 후에 내려앉은 어떤 후보다도, 심지어는 옥상에서 떨어진 지훈이가 사경을 헤맬 때 내려앉고 또 내려앉은 후보다 더 무거운 추였을 것이다. 그이에 대한 최초의 배신감이었으니까. 그는 나의 쓰라리고 허전한 가슴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손님들이 돌아간 후에도 이 애가 정말 귀티가 그렇게 나느냐고 나의 공감을 구하기도 하고, 허어, 그 녀석 귀티가 절절 흐르네 하기도 하고, 아무튼 내가 보기에 그이는 그놈의 귀티를 골백번 반추를 해도 싫지가 않은 눈치였다. 할 때마다 안색은 빛나고 입은 헤벌어졌다. 운동권이 귀티를 그렇게 좋아할 줄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는가?³⁵⁾

남편이 아직 운동권이었던 시절, ‘나’와 ‘나’의 남편은 아들의 백일을 기

적인 목표나 대의에 우선하는 태도를 뜻한다. 사랑의 요구와 가족 유대의 요구는 특수주의적이라는 점에서, 사적인 이익이 공적인(보편적인) 선에 종속되기를 요구하는 정의와 직접적으로 갈등한다. 이에 가족주의는 법적인 중립성, 공정성, 합리성과는 대비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김동춘, 『가족주의』, 피어나, 2020, 41면.)

35) 박완서, 앞의 글, 363-364면.

넘하여 남편의 대학 친구들을 초대할 적이 있었다. 남편 친구들은 남편에게 아들이 “장군감, 대통령감, 재벌감, 금메달감”이라고 칭찬을 해주지만, 남편은 이런 칭찬에 그리 기뻐하지 않는다. 남편에게 있어 이러한 칭찬은 다만 속물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아들이 “귀티”가 난다는 칭찬에는 “안색은 빛나고 입은 헤벌어”진다. 여기서 ‘나’는 남편에게서 “최초의 배신감”을 느낀다. 남편은 분명 부와 명예와 같은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성취를 저속하다고 경멸하는 이이기는 하지만, 결국 보통의 속물들과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을 위계적으로 구별함으로써 우월성을 추구하는 이에 불과했다. 다만 남편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물질주의를 지양한다는 제스처를 통해 스스로를 타인과 구별되는 특권적 존재로 만들고자 했다는 것일 뿐이다. 이 점에서 남편이 지녔던 ‘인간의 평등’이라는 시민적 이상 또한 자신의 이기적인 허영심을 충족하기 위한 자원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³⁶⁾ 이에 남편이 아무리 자신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했을지라도 그가 진실로 이들을 자신과 똑같은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간주하여 그들이 겪는 고통을 연민하고 있었을 리 만무하다. 이를 통해 ‘나’는 자신이 남편을 통해 기대했던 계급주의 타파와 같은 공공성 개혁이 결국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속적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이상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현재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막내 동생 성남이를 대학에 보내 집안 최초의 대학생을 만들어보겠다는 결심처럼, 다만 불평등한 사회 체제를 있는 그대로 수용

36) 「티타임의 모녀」에서 ‘인간의 평등’이라는 보편적 진리가 문화 자본으로 이용되고 있는 양상은 성당 행사 장면을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나는 우연히 들어간 성당에서 신부가 노인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사를 참관한다. 이 행사는 인간에 대한 신의 보편적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이지만, 정작 신부가 발을 씻어주기로 한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땅을 딛고 다닌 적이 있는 것 같지 않게” “분가루를 발라놓은 것처럼 새하얗고 보송보송”한 발을 가진 이들 즉 육체적 욕구에 속박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부자들이다.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성당에서조차 ‘인간의 평등’이라는 보편적 진리는 최하층 사람들과 괴리되어 중산층들의 미적 향유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인 것이다.

하고 이에 적응하는 것밖에 없음을 받아들인다.

「거저나 마찬가지로」는 2003년 노무현 정권이 수립되면서 소위 '386세대'가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들에 의해 정책적 혼선과 부정부패 사건 등이 불거졌던 2000년대 초중반의 상황을 배경으로 쓰인 소설로, 시민적 삶을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이들의 위선을 훨씬 더 냉소적으로 그려내면서, 엘리트 집단이 시민적 이상을 문화 자본화하는 양상을 보다 신랄하게 보여준다.

비록 컨테이너 박스일망정 사장실하고 붙은 방에서 사무를 보는 사장 친척이니까 그 언니가 백으로 느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후배라는 사실을 일찌거니 밝혀놓았다. 그러나 그 언니는 좀처럼 나에게 걸을 주지 않았다. 후배가 뒷사람이 되었으니 기분이 더러웠을 것이다. 엄마가 한때 파출부 나갈 때 시골서 같이 자라던 소학교 동창 집에 가게 되었을 때처럼 기분이 더러웠던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 열등감이라면 우리 모녀의 기분 정서였다. 나는 그 더러운 기분도 농쳐줄 겸 용기도 내게 할 겸 언니는 다른 종업원들하고는 어딘지 달라 보인다, 근본은 못 속이나보다고 말해준 적이 있다. 위로하기 위한 말이었는데 맹탕 헛소리를 한 건 아니란 생각이 들 정도로 말해놓고 나니 정말 달라 보였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태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달라 보이는 게 당연하지. 너희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이렇게밖에 못 살지만 난 아냐, 난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

나는 그 소리에 충격을 받았다. 그 소리를 할 때 순간적으로 내비친 먹물 냄새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건 고졸 학력의 표정이 아니었다. 다들 못 알아보는 걸 나만 알아본 것처럼 느낀 건 나도 대학을 못 나왔다는 열등감의 민감성 때문이었을 것이다.³⁷⁾

‘나는 ‘이류’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하고 친척 아저씨의 공장에 취직한

37) 박완서, 「거저나 마찬가지로」, 『그리움을 위하여』, 문학동네, 2013, 146-147면.

이로, 공장에 위장취업 한 운동권 언니를 만난 것을 계기로 노조 활동을 시작했다. 운동권 언니는 자신에게 가난하고 못 배운 노동자들을 책임지고 선도하는 특별한 소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이였다. 그런데 언니가 이와 같은 소명 의식을 지니는 것은 언니가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불가침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는 보편주의적 믿음을 지녀서가 아니었다. 언니는 한국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엘리트 집단에 속한 이로서의 특권 의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시혜’를 베풀 책임이 있다는 생각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든 것이었다.³⁸⁾ 이에 언니는 자신이 노동계급을 대변하고 이들의 해방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 실제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지 결코 알지 못한다. 언니에게 있어 노동자란 다만 자신의 특권 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관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손가락 잘린 여공이 나왔을 때 언니가 그 고통에 대해 연민하고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하기 좋은 구실이 나왔다고 기뻐하기만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니가 시대가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활동을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팁을 주듯이 거만하게 굴기도 하고 슬그머니 안 주기도 했다. 그래도 노는 것보다는 나왔고 유령 회사 팀장보다는 보람도 있었다. 번역자가 내 이름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내 글솜씨가 분명한 글이 아름다운 삽화와 함께 미려한 책이 되어 서점에 나온 걸 어루만져보는 맛은 섭섭하고도 대견스러웠다. 돈 되는 일보다 돈 안 되는 정채 모를 일거리가 더 많이 끼어들었는데도 그 일에는 마약 같은 중독성이 있었다.

38) 이남희는 지식인에게 착취되고 억압당하는 약자인 ‘민중’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담론이 지식인이라는 주체와 노동자라는 대상 사이의 위계적 구별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특권 담론이라고 얘기한다. 도덕적 특권 담론으로서 민중 담론은 노동자를 계속 대상의 위치에 고정해야만 지식인으로서 그들의 사회적 존재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는 딜레마를 내포한다. (이남희, 이경희·유리 옮김, 『민중 만들기』, 후마니타스, 2016, 392면.)

“너 누가 뭐 하냐고 물으면 프리랜서라고 그래. 좀 거만하게 상대방을 약간 깔보는 태도로 그래보란 말야. 넌 자랑할 건 안하고, 창피한 건 감출 줄 모르더라.”

“내가 뭘 감춰야 하는데? 나 창피한 거 하나도 없어, 언니.”

“이런 멍꽂이, 프리랜서가 일용직 노무자하고 사는 게 그럼 자랑이냐?”

“언니가 그 사람을 그렇게 알보면 어떡해? 그 사람이야말로 민중이야. 언니가 사랑하자고 외쳐마지않던 민중.”

“아유 이 멍꽂이. 그래 나 민중 사랑한다. 내가 민중이 아니니까. 가난뱅이가 가난 좋아하는 거 봤나. 부자들이나 한때 가난했던 걸 부풀려서 자랑거리로 삼지.”³⁹⁾

1990년대 이후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이후 운동권 언니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민중운동에 헌신하지 않는다.⁴⁰⁾ 그러기는커녕 언니는 이를 “아름다운 삽화와 함께 미려한 책”으로 만들어 입신양명을 위한 수단으로 만든다. 운동권 언니는 ‘나’와 같이 가난하고 힘없다는 이유로 경멸과 무시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민중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상황이 ‘나’가 언니의 책을 대필해주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커녕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나’는 점차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 이와 같은 모순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찬찬히 훑아본다. 아이러니하게도 ‘나’가 운동권 언니를 따라 노조 활동을 시작한 것은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39) 위의 글, 158면.

40) 87년 6월 항쟁을 통해 시작될 수 있었던 ‘87년 체제’는 민주화를 향한 시민들의 강한 열망으로부터 등장한 체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군부독재정권의 권위주의로부터 근본적인 단절을 이루지는 못한 체제였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공주의와 발전주의의 영향력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벗어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군부독재정권 시대와 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급진적인 이념을 기반으로 한 사회운동이 빠르게 축소된 것은 이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는 급속도로 탈정치화되었다. (최장집, 앞의 책, 222-231면 참조.)

불평등한 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였다. 타인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인격적 존중을 획득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위계적이고 서열화된 인정 질서 속에서 ‘이류’로 살아가는 삶이란 모욕과 수치를 감당해야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운동권 언니의 ‘인간의 평등’이라는 이상을 자신이 미주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도피처로 삼았던 것이다. 더욱이 이는 엘리트 집단만이 소유할 수 있는 교양을 자신 역시 지니고 있다는 허영심을 충족해줌으로써 자신이 ‘이류’라는 열등감을 보상해주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나’가 그동안 운동권 언니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이용만 당하면서 정작 ‘나’의 현실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던 이유였다. 이를 깨달은 ‘나’는 대신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한다.

“못난 건 아네. 못났으니까 자식 덕이라도 좀 보자는 거야. 아이가 우리에게 비빌 언덕이 될지 누가 알아. 우리는 아이 핑계로라도 달라져야 해. 어떡하든지 달라지고 싶어. 거저는 사절이야. 우리 거저 근성부터 고치자. 응? 싫음 그만두고.”

나는 그가 머뭇거리지 못하게 얼른 그의 손에서 길 잃은 피임 기구를 빼앗아 내 등뒤에 깔고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내 눈높이로 기남이의 얼굴이 떠오르든 때죽나무꽃 가장귀가 떠오르든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⁴¹⁾

‘나’와 애인 기남이는 그동안 자신들과 똑같이 경멸과 무시의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런 수동적인 체념에 머물렀던 것이 상위 계층을 선망하고 상위 계층에 미혹되어 그들에게 이용당해왔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며 비현실적 이상에서 도피처를 찾는 대신 현실에 직면하고 이를 조금이나마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결심을 한다. 다

41) 앞의 글, 176면.

시 말해, 아무리 비참하다고 할지라도 현재 자신의 ‘낮은’ 위치를 수궁하고 주어진 한계 내에서만이라도 자신의 실질적 몫을 증진시키고자 애쓰겠다고 생각을 바꾼 것이다. 평등과 같은 시민적 이상이 공허한 관념에 불과한 것이라면, 자신과 같은 힘없는 약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불평등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식 덕”이라는 말에서 잘 나타나듯, ‘나에게 있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고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나의 세대’에서 상황이 개선될 수 없다면 다음 세대에게 그 임무를 맡겨서라도 상생을 이루고자 아이를 낳고자 하는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박완서 문학에서 시민성이 ‘정신과 물질’ 혹은 ‘정신과 육체’라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대립 구도를 통해 표상되고 있음을, 박완서의 소설 중 운동권 및 사회주의자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들의 분석을 통해 구명하고자 했으며, 그로 인해 현실 인식에 있어 이중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좌파 지식인 ‘오빠’가 등장하는 한국전쟁 체험 소설 혹은 『목마른 계절』과 같이 사회주의자가 등장하는 소설에서 볼 수 있듯, 박완서는 시민성이란 육체적 본능에 구속된 삶을 반성할 수 있는 지성의 힘을 통해 초월적 정신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상정한다. 이에 박완서의 소설에서 시민성을 지닌 이들은 현실의 부조리함을 개혁하는 것을 곧 보편타당한 진리를 실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며 그 실천을 마다하지 않는 이들로 나타난다. 그런데 시민성과 정신성의 이와 같은 결합은, 시민성 추구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는 동시에 시민성 추구에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살

아있는 이상 그 누구도 육체적 욕구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시민성을 비타협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이란 육체적 존재로서 자신의 취약함을 수용하지 못하는 미숙함의 발로로도 이해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성을 초월적 정신의 추구로 간주하는 것은, 그 반대급부로서 소시민성을 오직 감각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 즉 물질성을 띤 것만을 실재로서 인정하는 물질주의와 결합되도록 함으로써, 소시민성 또한 이중적으로 이해하게끔 한다. 「사람의 일기」, 「저물녘의 삼화 1」 등에서 확인해볼 수 있듯, 소시민성을 물질주의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소시민성을 곧 속물성으로 여기도록 하면서 소시민성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도록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에서 확인해볼 수 있듯, 이는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물질이라는 유일 실재에 충실한 삶이라는 점에서 관념적 허상에 근거한 시민적 삶보다 진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되어준다.

시민성을 초월적 정신의 추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기심의 극복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민적 덕성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에 박완서의 소설에서 시민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타인의 고통에 무심한 이기적인 소시민들에게 있어 도덕적 반성의 계기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시민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이와 같은 도덕적 기대는, 시민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실망감을 더욱 크게 만든다. 「티타임의 모녀」, 「거저나 마찬가지」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박완서는 민중운동가들이 소시민과 마찬가지로 사욕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시민적 이상이 결국 관념적인 것 혹은 문화 자본화된 교양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냉소하면서, 따라서 공공성 개혁에 대한 기대를 품는 것보다 부조리한 사회 체제에 적응하는 것이야말로 피지배자들에게 있어 현실적 최선이 됨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박완서, 「특집3: 한국의 세대론 - 정치의식과 사회의식 60대 - 삶과 정신의 운명적 이중성」, 『역사비평』 34, 1996.봄.
- 박완서, 『나목』, 세계사, 2012.
- 박완서, 『목마른 계절』, 세계사, 2012.
-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세계사, 2012.
-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세계사, 2012.
- 박완서, 「사람의 일기」, 『저녁의 해후』, 문학동네, 2013.
- 박완서, 「저문 날의 삽화(挿話) 1」,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문학동네, 2013.
- 박완서, 「티 타임의 모녀」,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문학동네, 2013.
- 박완서,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문학동네, 2013.
- 박완서, 「거저나 마찬가지」, 『그리움을 위하여』, 문학동네, 2013.
- 박완서, 「빨갱이 바이러스」, 『그리움을 위하여』, 문학동네, 2013.

2. 단행본

- 김동춘, 『가족주의』, 피어나, 2020.
- 김정환, 『비혁명의 시대』, 빨간소금, 2020.
- 신진옥, 『시민』, 책세상, 2008.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개정 2판, 후마니타스, 2010.
- 이남희, 이경희·유리 옮김, 『민중 만들기』, 후마니타스, 2016.
- 카를 마르크스, 김현 옮김,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 책세상, 1996.
- 존 피스크, 곽한주 옮김, 『텔레비전 문화』, 썬더북, 2017.
- 레이먼드 윌리엄스, 김성기·유리 옮김, 『키워드』, 민음사, 2010.

3. 논문

- 김동춘, 「시민권과 시민성 - 국가, 민족, 가족을 넘어서 -」, 『서강인문논총』 37,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5-45면.
- 김태승, 「노무현 정부의 386정치인들의 도덕적 실패에 대한 연구: 밋세바 신드롬(Bathsheba Syndrome)과 관련하여」, 『한국정치학회보』 45(4), 한국정치학회, 2011, 219-238면.

- 김혜선,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재현되는 ‘투사/열사의 어머니’로서의 정치학과 아포리아」, 『영주어문』 56, 영주어문학회, 2024, 135-163면.
- 소영현, 「전쟁 경험의 역사화, 한국사회의 속물화: ‘헝그리 정신’과 시민사회의 불가능성」, 『한국학연구』 3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273-313면.
- 서은혜,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죄의식과 도덕적 방어의 전개 과정 : 전향자, 운동권 형상화 소설의 연속성 및 변주와 관련하여」, 『한국학논집』 8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2, 107-140면.
- 신새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먹는 인간’의 의미: 초기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5, 상허학회, 2015, 333-359면.
- 오자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정체성 형상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 이수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애도와 죄의식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2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83-110면.
- 이수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생존 경쟁과 주권 권력」, 『인문학연구』 63,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287-314면.
- 이영아, 「박완서 단편 소설의 ‘학생운동’에 대한 시선」, 『여성문학연구』 2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609-643면.
- 이혜령, 「박완서의 1980년대 - 빨갱이, 운동권, 사회주의(자)의 절합 -」, 『국제어문』 29, 국제어문학회, 2018, 357-384면.
- 차미령, 「생존과 수치」, 『한국현대문학연구』 47, 한국현대문학학회, 2015, 445-480면.

<Abstract>

The Representation of Citizenship in Park
Wansuh's Literature and its Ambivalent Effects
– With a Focus on Fiction Featuring Activist and Socialist
Characters

Han, Kyunghee

This article examines Park Wansuh's fiction depicting activist and socialist characters to illustrate that it represents citizenship through a traditional metaphysical frame opposing the spiritual or ideal to the material and physical, resulting in an ambivalent effect in relation to perception of social reality. As can be seen in Park's fiction about her experience in the Korean War, featuring the leftist intellectual older-brother character, and in her novel *Parched Season*, which features socialist characters, Park posits citizenship as proceeding from the pursuit of a transcendent spirit capable of intellectually reflecting on a materialist life confined by physical instincts. But while this conflation of citizenship with idealism does function as a basis for ascribing morality to the pursuit of citizenship, it also comprehends such a pursuit as an expression of immaturity, a failure to accept one's weakness as a physical being. In addition, when those leading lives as citizens succumb to selfish behavior, this perspective creates a fundamental skepticism of their authenticity, as can be seen in works like "Mother and Daughter at Teatime" or "Practically for Free." At the same time, this conflation of citizenship with idealism conversely associates the petit-bourgeois with materialism, which recognizes only that which can be experienced through the senses

—only that which is material—as real, thereby producing an ambivalent understanding of the petit-bourgeois as well. As can be seen in “A Person’s Diary,” “Illustration of Evening 1,” and “The Last Thing I Have,” to be petit-bourgeois is to be materialistic, a source of shame and guilt, but at the same time, petit-bourgeois life’s fidelity to what alone is real—the material—makes it a truer life than that of the citizen, based as it is on an ideal illusion.

Key words: Idealism, Spirit, Material, Petit-Bourgeois, Citizen, Intellect, Activism, Culture, Class, Inequality

투 고 일: 2024년 8월 25일

심 사 일: 2024년 9월 11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1일

수정마감일: 2024년 9월 25일